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자 2023년 2월 1일(수) 총 2매		
담당 부서 정보화담당관실	담당자 • 정보서비스팀장 김경미 ☎440-2321 • 담당자 최정선 ☎440-2322			
사진(이미지)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어르신 등 디지털 격차 해소위해 맞춤형 교육 나서
 - 키오스크 주문, 스마트폰 활용, 대중교통 온라인 예약 등 교육 -
 - 도서관, 복지관 등에 디지털 배움터 확보, 도서·산간지역에 에듀버스 운영도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디지털기기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층을 비롯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‘2023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사업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올해는 지난해보다 2억 3천여만 원이 증가한 27억 원 가량의 사업비를 확보해, 시민 누구나 쉽게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역량부터 심화 교육까지 수준별 맞춤형 과정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.

지난해 인천시는 본 사업을 통해 약 2만 8천 4백여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았으며, 이중 60대 이상 어르신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.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, 도서관, 복지관 등 디지털배움터에서의 집합교육, 도서 지역 등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부족한 시민에게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이나 교육 대상 등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.

올해는 시민 맞춤형 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해, 도서관, 복지관 등 공공기관 외에 비영리 목적의 민간 시설을 디지털 배움터로 확보하는 등 지역 밀착형 교육 장소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.

또한 정해진 장소나 시간에 교육받기 어려운 도서·산간 지역에 사는 시민들을 위해 에듀버스 및 이동 부스 등을 이용해 지역별 찾아가는 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손혜정 시 정보화담당관은 “단순히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이 아니라 무인기기(키오스크) 주문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뱅킹, 대중교통 온라인 예약 등 디지털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등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고 도움이 되는 체험·실습형 교육을 강화할 것”이라며 “모두가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.” 고 말했다.